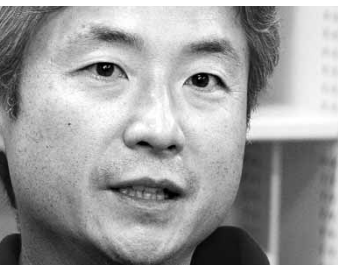


# “정체성이 내 소설의 본질... 광주 5·18정신 문화로 승화를”

## 한국계 미국작가 이창래 프린스턴대 교수 광주 강연

한국계 미국작가가 최근 6·25 전쟁의 참상을 그린 소설 '생존자(The Surrendered)'를 출간,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고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이창래(48) 프린스턴대 문예창작과 교수. 광주일보에는 지난 3일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에서 '주변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소설'을 주제로 강연한 이 작가를 단독 인터뷰했다.



졸업하고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활약했다. 이민 1.5대에 한국계 출신이라는 배경도 여는 작가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정작 그를 돋보이게 한 건 외적인 배경이 아니다. 그의 소설은 서사와 통찰 그리고 문체라는 삼요소가 톨니바퀴 돌리듯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인간과 삶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과 이를 스토리로 매개하는 작법이 다른 작가들과 '문학적으로' 변별된다. 여기에 중심과 주변이라는 21세기의 화두가 밀도있게 그려진다.

“어린 시절의 미국 생활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경제인으로서의 삶은 끊임없이 주변인으로 살게 했어요. 외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타자를 바라



주한미대사관 초청으로 3일 광주를 찾은 이창래(프린스턴대 교수) 작가가 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에서 '주변인으로서의 나의 삶과 소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6·25 참상 그린 소설 '생존자'... 노벨상 후보 거론 예일대 졸업... 작가 데뷔전 월가 애널리스트 활동

“미국에서 광주와 5·18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부에 항거한 의로운 도시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광주는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높고, 음식이 맛깔스러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와 보고 싶었죠.”

주한 미국대사관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이 작가는 지방 강연으로는 광주가 유일하다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작가는 명문 예일대 영문과를

보는 관찰자 의식은 결과적으로 저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소설가로서의 출발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잘나가던 금융원에서 무명의 작가로 방향 전환하기까지 적잖은 고통이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다. 별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조심스럽게 진로 문제를 꺼냈다. 어머니는 물론서 허락을 했다. 3~4년간 도전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고

만류했다. 직장을 나온 후, 그는 하루 12시간씩 글을 썼다. 첫 소설은 보기 좋게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개념과 아이디어 위주라 가독성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사이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렸다.

돌과구가 필요했다. 어설피게 뉴욕의 지적인들에게 읽히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독자로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쓰겠노라 다짐하고, 몇 년간 다시 소설과 사투를 벌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영원한 이방인(Native Speaker)’을 출간하고 나자 호평이 쏟아졌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제 소설에

많은 동감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럴 역시 미국에서는 늘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요. 저의 관심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죠. 인간과 삶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천착이랄까...”

그는 글을 쓰면서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초기에는 나뭇잎의 물이 있지만 차츰 그것을 벗어던졌다. 소설이 작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작가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규칙은 “진실을 찾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동안 그가 썼던 ‘제스처 라이프(A Gesture Life)’, ‘생존자(The Surrendered)’도 동일하게 비극에 처한 인간의 모습과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까운 장래 그가 5·18과 관련한 작품을 구상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그는 헤밍웨이재단·펜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등 미국 문단의 찬사도 적잖이 받았다. 지난 3월에는 ‘생존자’가 동인문학상 월독회 검토 대상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내년 1월에는 신간을 출간할 예정이다.

“광주만의 정신, 광주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슬픈 일을 통해 성숙해지듯 역사적 비극을 겪은 광주도 한층 더 성숙해지리라 기대합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서 북한 영화 볼수 있을까

광주국제영화제 '산너머 마을' 등 2편 상영 추진

오는 8월29일~9월2일까지 열리는 광주국제영화제가 북한 영화 상영을 추진한다.

지난해 북·중 합작 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을 상영했던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정동태)는 4일 올 영화제에 '산너머 마을(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2012)과 '꽃 피는 처녀'(1972)를 상영키로 하고 통일부에 승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북한 영화 상영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자본이 투입된 '산너머 마을'은 최초 북미 합작영화로 미국 이민자 배병준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작품이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북한 간호사와 남한 병사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지난해 시카고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



기도 했다.

또 다른 작품인 '꽃 피는 처녀'(감독 박화·최익규)는 1920~30년대를 배경으로 악독한 지주와 일본 순사에게 억눌려 살던 꽃병이 일가의 삶과 그리워, 대표적인 항일 영화로 꼽히는 작품으로 북한 혁명가극으로도 인기가 높다. /김미은기자 mekim@

### 알림

## '종교칼럼' 필진 바꿉니다

매주 금요일 연재되는 광주일보 '종교칼럼'이 7월부터 새로운 필진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불교·가톨릭·원불교·개신교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세상살이에 대한 위로가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중서 (화엄사 수도암 주지)  
▲중앙승가대학교 졸업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 김관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사목장)  
▲로마 살레시오 대학교 졸업 ▲광주봉선동성당 주임
- 방길튼 (원불교 나주교당 교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졸업 ▲원불교 영산사무소 교무
- 김재영 (광주 성안교회 담임목사)  
▲미국 백코믹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기독교문화선교회 광주대표

光州日報社

## 광주천변서 '삼겹살 파티' 가능해진다

정부, 도시공원 휴양시설에 바비큐 추가... 우치·중앙·중외공원 등 가능

광주 천변이나 우치공원·중앙공원 등에서 공식적으로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

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레저의 산업활성화 측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단위의 관광·휴양객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령상 설치 허용시설에 빠져 있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에서 지정된 장소를 제외하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시공원이란 자연보호와 시민의 여가 활동 등을 위해 도시 내 만들어진 것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

육공원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100여개 시설만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자원·세척 시설 포함)'을 3분기 중에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이 바뀌면 지자체들이 근린·수변·체육공원 등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좁은 소공원이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시설 설치 유도 대상에서 배제된다. 공원에서

고기를 먹기는 쉬워지지만 음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음주가 고성방가나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지자체들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제에 대비해 소화시설과 공원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모두 567곳의 공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삼겹살 파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은 우치·중앙·중외공원 등 근린공원 77곳, 천변공원·상무공원 등 수변공원 2곳 등 79곳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기술, 고주파 지방분해 기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계림동 ● 주지정교 ● 고객 주차장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3)30-공-269호

**2013년도 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모집**

재단법인 이형만 향우장학재단은 재광 영광군향우회가족 중에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I.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광주시 관내 거주 시민으로 중, 고등학교 ~ 대학생 - 단, 2012년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광주시민으로 무연고, 세대주, 가족수, 개인상황 등 고려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지역 11명, 영광지역 11명(영광군에서 선발)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추천서 1부
- 기타서류: 통장사본 (본인 명의에 한함)

**III. 선발일정**

- 서류접수: 2013. 7. 1(월) ~ 7월 31일(수)
- 최종선정: 2013. 8월경 발표 (2013년 장학 회보에 발표)
- 장학금 지급 및 증서 수여: 2013. 9월 초 영광군민의 날(예정)

**VI.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접수(7월 31일까지)
- 신청 및 문의처: 영광광역시 서구 화정동 404 영주체육관 117호, 사무총장 강 대 의
- www.edaynews.com나 '재영광군향우회카페' http://cafe.naver.com/yeonggwanggun을 통해 먼저 발표됩니다. yug42@naver.com/edaynews@paran.com으로도 장학신청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 T. 010-4192-5182 / 062-673-0419
- 신청양식: 신청서 상단 우측 별도 양식 참조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장학생을 위한 간략하고 최소화된 서류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 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영광군은 영광군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영광군향우회가족 중 광주 시민은 향우장학회 사무실로 우편접수하시며 됩니다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삼색음식: 토종 참돔탕 / 돔 청둥오리 / 돔 삼계탕
- 한방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돔탕 40,000원**  
(오분, 식사 술 포함)

**춘달백숙 38,000원**

**욱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욱닭 062)515-5757(욱칠욱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광주역: 해피뷰병원(구,삼성병원) ● 신동식당 ● 농협 ● 간암보통과당 ● 근로복지재단 (중앙부서) ● 롯데백화점 ● 수창초교후문